

### 외당속의 히브리어 재해석④

오염화와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무궁화와 구세주 상징하는 오  
염화

아래 외당 사진 속의 오염화 (五藥花)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상징하며 5개의 꽃잎은 5수로써 구세주를 상징한다. 주역에서 10과 5는 중앙 토(土) 자리로서 완성의 하나님 구세주를 의미한다.

단군민족은 그 시조 '단'이 하나님의 삼관권을 축복받은 민족(창49:16)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믿는 메시아사상이 있었다. 그것이 비록 고조선이 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면서 미륵사상으로 변화했고, 이조시대 유교 문화가 발전하면서 정도령사상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우리민족은 어느 왕조로 바뀌든지 주변국의 문화가

신앙사상이 그대로 송두리째 잘 보존되어 들어왔다. 그러기에 일제 식민치하에서 갑급하던 자유와 하나님의 사상은 성경이 매개체가 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우리 민족혼을 불태웠고, 단숨에 구세주의 성령의 불로 승화하게 되었다.

성경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된 인류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 가운데서 구세주(정도령, 생미륵불)의 출현으로 21세기 세계 정진문명의 대 개벽을 이루고 있다.

#### 홍익사상 결실, 영생의 진리

그것이 불사영생의 참 진리의 말씀이요, 감로이슬성신에 의한 인류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빙하기 녹아지고 급속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구 대



입문수기

## 첫회, 주님! 당신 없이는 영생 길 갈 수 없어요

경남 충무시 도남동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옆으로 논과 밭이 펼쳐진 공기 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새벽부터 논, 밭에 일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집안의 막내인 나는 언니를 도와서 당근 씻는 일, 고추 따는 일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심부름도 곧잘 하여 칭찬을 받을 때는 기분이 참 좋았다. 그래서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내가 다하며 뛰어다니기를 좋아한 덕분에 동네 아저씨들이 '예뻐'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방학 때 수영하며 놀러 다닐 때, 나는 조개도 캐고, 파래도 뜯고, 굴 껍데기 끼우는 일 등 쉬지 않고 일을 했다.

#### 자녀들에게 무심했던 부모님

엄마, 아버지께서는 돈도 모르고, 자녀들 교육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농사 일에만 전념하실 뿐 자신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셨다. 하루는 엄마랑 고추밭에서 고추를 같이 따는 중에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 근처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데려왔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몰래 밤마다 서툰게 많이 울었다. 친엄마를 그리워하고 찾는 마음에 베개가 찢도록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곤 했다. 그런 나를 부모님은 전혀 몰랐을 정도니 그만큼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 무심하셨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마산에 있는 한일 여자실업고에 진학하여 기숙사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한일여실고에는 대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일반고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생활하다보니 스프레스가 많이 쌓이고 해서 자살사동도 있기도 하고, 귀신 이야기 등 무시무시한 괴담도 돌아 무서움과 두려움을 많이 타는 나는 기숙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와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치장하고 멋 부리



무궁화관현악단 클리리넷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설순연 님(앞줄 왼쪽)

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끼니를 챙겨먹지 못하다보니 변비가 생겨서 고생도 많이 하였다. 그러는 중에 왜 먹어야 하나, 잠은 왜 자야 하나, 일은 왜 해야 하나 등등의 생각을 자주 하곤 하였다.

####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껴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우연히 접을 보게 되었는데 19세에 귀인을 만났다고 하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언니 친구가 나에게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는데 가볼래"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나에게 잠깐 보여주기만 하고 도로 집어넣었다. 지금 생각하니 주님 사진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날로 당장 언니 친구를 따라 찾아가던 곳이지만 승리제단이었다. 책임승사님과 대화도 하고 비디오로 말씀도 들으면서 지내다가 일요일 날 부산제단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 식구들과 같이 부산으로 갔다. 예배인도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내가 찾던 엄마야' 하는 느낌이 왔고, 그

순간 오염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었다. 그만큼 주님께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엄마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다.

#### 주님을 매일 볼 수 있는 공장으로

주님께서 부산제단에 오시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마산제단 승사님께 주님을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역곡 3층 공장에 가기를 권하였다. 주님이 계시는 역곡에만 가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 것 같았다. 주님께서 연단 받은 기분이 들 것 같았다. 주님께서 연단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감화 감동이 되면서, 주님께서 이긴자가 되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 과정을 나 또한 만 분의 일이라도 흉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3층(공장)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퇴직금을 받으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향했다. 막상 그 먼 곳을 하루 만에 갔다와

야 되니(당시는 가는 데만 대역섯 시간 걸렸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출지,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택한 자들을 마귀들이 시험한다는데 관촬을지 등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말까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서 퇴직금 담당자 앞에 용건을 말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었다. 퇴직금을 받고 저녁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역곡에 도착하니 마치 축지법을 쓴 것처럼 언제 그 장거리를 갔다왔나 싶은 정도로 방금 떠났다가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또 제단에서 보안법 철계 반대 시위를 주최하였을 때 집합장소인 여의도에 가기 위해 뛰어가는 도중에 확하며 날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백합화 향기를 아주 진하게 맡았다. 향취는 구세주 하나님의 증표라는데 이때 처음으로 맡았던 것이다.

#### 처음에는 저절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져

주님은 매일 아침 제단에 출근하실 때 먼저 3층(공장)으로 오신다. 3층공장은 가족과 세상 인연을 다 끊고 올라온 신도들이 단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제공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주님은 이런 공장식구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첫출근을 이곳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 시간에 맞추어 공장에서는 조회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신다.

조회시간에 주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의 속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시라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가까이서 본 주님의 눈은 마치 푸른 호수와 같아서 내가 그곳에서 헤엄을 쳐도 하나도 안 아파하시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그윽한 눈동자를 본 사람들은 다 알리라. 우주의 모든 마음으로 불쌍한 인생들을 다 품어 안으시는 그 넓디넓은 사랑이요.\*

설순연 / 보광패션



변질되어 역으로 흘러 들어와도 원래 유불선 3교를 내포한 우리의 신교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 발전된 생활철학, 생활종교, 생활문화로 발전시켰다.

#### 위대한 무궁화민족의 문화유산들

그 첫 번째 예로 불교가 삼국의 정신적문화로 발전하다가 결국 신라의 화랑정신으로 발전하여 분열된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리하여 신라 천 년의 화려한 불교문화의 꽃을 피웠고, 그것이 시들어 씨를 남기고 간 것이 미륵사상이요, 새로운 나라 고려의 탄생과 후삼국 통일이다. 그리고 고려시대를 마감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팔만대장경이란 목판경전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문화를 남겼다.

두 번째로 고려가 불교적 사상이 퇴폐하여 그 문명을 다하면서 유교문화가 들어와 씨앗이 되고 새로운 이씨 조선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경영의 지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성리학과 실학이라는 또 다른 유교문화의 꽃을 피웠다. 이씨조선이 남긴 최대의 문화유산은 한글을 들 수 있는데 오늘날 세계적 문화유산이 되었고, 시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메시아 정도령 시대를 예고하면서 유교문화를 장식하였다.

구세주 메시아 배출의 사명이 있는 우리 천손민족은 이조시대를 마감할 즈음 그 옛날 우리 조상 단군민족이 이 땅으로 오면서 가져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계요 잠언집인 성경이 천주교를 따라 들어옴으로써 원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삼신사상,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

물론 그 외형이 예수와 천주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변질된 모습이지만 하나 그 속의 알맹이 사상은 단군민족의 잃어버린 뿌리역사와 하나님을 숭배하던 원

개벽의 전조 현상이다. 한민족 고유의 신교문화인 내천 사상과 홍익인간 사상은 불로불사 영생의 새로운 정진문명으로 재탄생 되었다. 그리고 신화로만 여겼던 하나님의 서자 환웅과 단군민족의 정체가 드러나 신화가 아닌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한민족의 뿌리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야말로 작고한 성철스님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교인은 조차도 구세주 예수를 버리고, 불교인은 미완성의 미륵불인 석가를 버리고, 유교인은 미완성의 군자였던 공자를 버릴 때이다.

진짜 구세주 정도령 생미륵불님의 영생의 진리말씀과 감로이슬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점진적으로 소멸하고 있다. 그리고 천손민족이 꿈꾸던 신의 나라 지상천국, 지상극락, 무릉도원의 세계가 점점 더 빠르게 조수(潮水)로 밀려오고 있다.

이것이 '오염화와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외당 속의 말씀은 우리 조상 단군민족이 남긴 위대한 예언이요 명령이다. 진실로 외당 조각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3000여 년이 지나서 생생하게 부활하여 화려한 꽃을 피우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무궁화가 되었다.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외당 속의 비밀을 풀어 해석하여 보고 나니 이 시대 우리 한민족의 사명이 차차대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의 학문이 어떠한가? 세상의 종교가 어떠한가? 역사 철학을 한다는 자들이 사람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하여 인간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제 비로소 인간이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진짜 생명과학, 진짜 역사와 종교, 진짜 우주 철학이 나왔으니 외당 속에 새겨둔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졌다.\*

연재 끝  
서보록 / 우리 역사 바로잡기 운동가



입문수기

## 마지막회 주신 사명 다하리라

정도령님 말씀 알리는 일 중요성 깨달아

#### 정도령님 말씀 알리러 블로그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나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킨 정도령님의 진리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주위에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정도령님 말씀을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여 보게 될 테니까 그것이 전도하는 길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5년 전(2012년)부터 시간 있을 때마다 컴퓨터로 정도령님의 말씀을 블로그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최근에 올리려고 준비 중인 것이 있다. 유튜브에서 본 것 중에 마음에 와 닿은 예언인데 미국의 유명 한 영 능력자이자 문인인 루스 몽고메리가 한 말이다.

“극이동의 시련기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투쟁과 증오에서 해방되며, 서로서로가 잘 되기를 도와주면서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때에는 음성이나 화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영적인 방법으로 상호교류할 것이다.”

“앞으로 인구가 격감해서 천상의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회가 희박해진다.”

“21세기가 되면 전쟁무기는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유는 인간이 더 이상 분쟁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진보라는 외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기 때문에 미래는 인간의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인간은 신의 섭리에 순종하게 될 것이며 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힘이 부활될 것이다.”

루스 몽고메리의 예언은 앞으로 오게 될 하늘나라를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



정도령님 본받아 사명을 다 하겠다는 김정애 승사

다. 한편 루스 몽고메리는 극이동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대처방법은 논하지 못했지만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비참한 괴질병이 세상을 휩쓸어 버릴 때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극비(極秘)로 그의 '장대'를, 격암유록은 '해인(海印)'의 조화로 전하고 있다. 격암 남사고 선생은 '해인'을 '조화'와 '권능'의 상징으로 거듭 강조했다.

궁음심승의 주인공 正道宗(정도령)은 甘露海印(감로해인)을 들고 나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승리제단 식구라면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다. 진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명백해짐을 느낀다. 율곡의 내용을 나의 블로그에 정도령님 말씀과 비교하여 동영상을

만들 예정이다.

#### 정도령님을 본받아 주어진 사명을 다하리라

이 길을 가다보면 어떤 날은 나의 머릿속에 온갖 잡동사니 공상, 상상으로 가득 할 때도 있다. 옛날 나를 강하게 점령하고 있던 공상 마귀가 발동하는 때인 것이다. 나는 그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박살내려고 열심히 요철 암송을 하고 있다. 말씀만이 머릿속 잡념 즉 마귀를 전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육비(肉脾)에 새기려고 노력한다. 정도령님 말씀을 위우다 보면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이 백지화 되는 것을 종종 느낀다. 그럴 때는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다. 물론 마귀가 죽는 것은 내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성신의 능력이 아니면 뿌리째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정도령님께서 보광하신 후 제단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도령님께서 보광의 길로 가셔야만 했던 원인이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백분이 일 정도 깨달음이 왔을 때 가슴이 평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도령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지금 모든 것을 정도령님께 맡기고 시간시간 주 안에서 행하고 싶은 마음에 나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듯이, 하루 빨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혁명을 주도하시는 이긴자를 본받아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역군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해 본다.\*

김정애 승사 / 보광패션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